

# 동서양 복식에 나타난 식물문양의 종교적 상징성 연구 - 한국과 비잔틴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 윤 정

독일 뮌스터대학교 의상직물 전공 박사과정

## An analysis of botanical patterns' religious symbol in clothing - focusing on comparison of Korea and Byzantine -

Yun-Ju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Muenster University, Germany

(2003. 10. 4. 접수)

### Abstract

'Pattern' is of very unique nature in each and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and its aesthetic feeling of 'pattern' has been handed down according to its nationality and cultural development process. That is, 'pattern' is ornament to symbolize each country's aesthetic standard or choice through some shape, reflecting social consciousness or religion philosophy.

Mostly based upon literature survey and case study, this survey paper analytically compares oriental botanical pattern with occidental botanical figure,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Buddhism-Confucianism and Christian relig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some patterns are commonly used in both area, while meaning differently in some cases : lotus (life), pomegranate (wealth and prosperity in orient, resurrection in occident), grape (fecundity in orient, wealth in occident), dangcho (fecundity in orient, victory in occident).

And the other patterns look uniquely used either just in orient or only in occident. For instance, oriental area had its own patterns such as peony (meaning wealth and honour), peach (longevity), ume flower (happiness), orchid (fecundity); while occidental area used lily (purity), olive (peace), palm (victory), and so on. Interestingly, the botanical patterns were used as main patterns in orient whereas as minor in occident.

**Key Words:** patterns(문양), symbol(상징성), religion(종교), culture(문화), botanical pattern(식물문)

### I. 서론

문양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문양에 대한 미적 감정은 그 민족이 지

니고 있는 민족성과 문화의 발전과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전해 내려왔다.

즉, 각 민족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에 풍토, 사상, 종교 등이 작용되어 표출된 장식 조형의 한

요소로서, 각 민족 특유의 조형감각과 시대적 조형양식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sup>1)</sup>.

이는 정신적인 가치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미적 기준과 선택의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문양은 인간의 마음에 담겨 있는 미적 심성이 하나의 형을 통하여 의지가 형상화한 장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대성이나 사회성 및 종교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미의 표현물이다<sup>2)</sup>. 일반적으로 의복이나 신체장식품으로서 표현된 문양의 상징은 여러 나라가 일치하는 점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문양을 빌어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 한다거나 자연을 극복하여 행운을 맞아 보려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sup>.

동, 서양의 문화를 보면 확연히 구분되어 지는 것은 물론 지역적인 면도 있지만 종교적인 심미성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사물을 대상으로 한 우상화를 철저히 배격한데 비해 동양은 유교적 불교문화가 성행되어 풍부한 상상력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정신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각 문화권의 민족들은 그들 고유의 문양을 발전시켜왔다.

문양은 표현되는 형식에 따라 단독, 복수, 연속, 전면 문양형식으로 나누어지고, 사용되는 소재의 주제에 따라 기하학적 문양, 양식화된 문양, 자연주의적 문양(식물문, 동물문등), 패턴, 조형적 문양으로 나누어진다<sup>5)</sup>. 이중 식물문양은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친밀감 있는 것으로서 일상생활과 잘 어우러진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생활을 부드럽게 해주며 감정을 풍요롭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양에 대한 선행연구논문과

기존문헌을 참고로,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하는 불교적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동양(한국을 중심으로)의 문양과 절대 신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서양(비잔틴을 중심으로)의 문양의 상징성을 식물문양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양의 상징성

문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기원전 2000년 이전 이집트 복식에 발달된 문양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양은 장식본능설, 공간공포설, 상징설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중 상징설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체적 대상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인간의 소망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실적 혹은 추상적인 문양에 주술적, 종교적 의미를 부가하여 표현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염원인 부귀영화, 안락, 영복을 기원하였다<sup>6)</sup>.

즉, 문양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나 환경적인 조건을 있는 그대로 인간의 의미로 연결시켜 하나의 상징성을 부여하였고, 다시 이를 통하여 미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미적 태도를 가짐으로서 상징이 하나의 미적인 존재로도 표현되었다.

상징이란 단어는 희랍어 “symballein”에서 온 것으로서 그 뜻을 “함께 만나다” 또는 “추론하다”를 나타낸다. Harvey에 의하면 상징을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일정한 의미나, 의미들은 지니는 그림, 말 혹은 물체라고 하였다<sup>7)</sup>.

1) 이상례 (1991). 비잔틴 직물 문양 연구. 창원전문대학논문집 9, pp.145-173.

2)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민음사.

3) 신영선 (1993). 색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조형논총 12(932), pp.351-373.

4) 신민 (2001). 한, 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 길상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공예논총, pp.65-91.

5) 박혜원 (1995). 봉황문양의 한국적 조형미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중국의 조형미 특성과 비교에 의한-. 오산전문대학논문집 5, pp.413-440.

6) 박혜원 (1995). 전개서, pp.413-440.

7) Harvey, Van A. (1964). A Handbook of Theological Terms. Macmillan Co., p.232.

Ricoeur는 상징이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지 않고 그 이상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상징은 해석하며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극한다고 보아, 이런 점에서 상징 안에는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상징은 끊임없는 해석과 사고를 창출시킨다고 볼 수 있다<sup>8)</sup>.

이와 같은 문양이 지니는 상징성은 인간의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반영하여 인간본연의 미적 발현과 주술적 종교의식이 융합되어 나타내는 도형의 한 형식이다<sup>9)</sup>.

문양의 상징성을 통하여 인간은 그 마음의 일면을 보상받고, 보호받거나 미래적인 기원에 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대부분이 자연에서 소재를 찾은 것은 그만큼 자연과 친근하고자 하는 심성으로서, 자연은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자세가 자신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안심입명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문양은 인간의 마음이 염원하는 심적 의지를 자연적, 사실적인 내용이나 문자 또는 공상적인 의미를 이용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고도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사회에서 상응되는 문양은 그 사회의 특질에 접근하는 한 기호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10)</sup>.

## 2. 유교적 불교문화권과 직물문양

동양인의 사상은 儒, 佛, 道의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동양의 철학은 공자와 노자, 장자 등에 의하여 기본 사상을 이루고 있으며, 동양의 세계관은 우주적인 통일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섭리로서 하늘과 땅, 인간의 존재를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동양인은 만물의 근원을 자연에 두고서, 천,

지, 인의 삼재를(三才)를 통하여 작용되는 것으로 우주적인 통일적 세계관을 통하여 미를 인식하려 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억지와 왜곡이 없는 자연의 섭리와 혜택을 받아들인다는 자연관, 인간 생활과 인간미에 바탕을 둔 인간성의 문제, 상황의 표현,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표현방식, 해학과 우아함 등이 문양으로 표현되었다<sup>11)</sup>.

유교적 불교문화권에서 사용된 문양은 주로 길상적인 의미로 의례적인 의미로 왕실복과 공복 등에 사용되었다. 길상적인 의미로 長壽, 多男, 富貴功名, 福을 기원하는 동물문과 식물문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물이 가진 고유 특성에서 연상된 길상도안과 뜻글자인 한자의 동음동성(同音同聲- 음과 4성의 성조가 모두 같음) 혹은 동음이성(同音異聲- 음은 같으나 4성의 성조가 다름)의 특성에서 연유한 길상도안의 활용이 매우 많았다. 전자로는 다자(多子)의 상징인 석류나 물고기, 장수의 상징인 학이나 거북 등이 있으며, 후자로는 복(福)과 동음동성인 복(蝠), 상(祥)과 동음동성인 상(象), 길(吉)과 동음이성인 계(鷄), 귀(貴)와 동음동성인 계(桂) 등을 이용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sup>12)</sup>.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우리나라의 사상에 맞게 소화 흡수시켜, 대례복, 혼례복 및 장신구등에 이러한 길상도안들을 수놓아 아름다움과 미래에 대한 기원을 담았다.

## 3. 그리스도교 문화와 직물문양

서양의 미 개념은 고대 그리스 이래 다양한 장소와 인물들에 의하여 철학적 사상과 관련하여 변천을 거듭하였다. 4세기 이후부터 유럽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지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비잔틴 문

8) 이경손 (1996). 기독교 상징에 관한 연구 -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 배화논총 15, pp.169-193.

9) 임영자 (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pp.261-274.

10) 김양희 (2003). 중국 길상도안에 나타난 연화문 연구. 복식 53(1), pp.67-75.

11) 김윤희 (2000). 한국전통문양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전주기전여자대학 논문집 20, pp.67-86.

12) 김양희 (2003). 전개서, pp.67-75.

화가 꽃피기 시작하였다. 비잔틴 문화는 고대에서 중세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민족문화를 형성하였고, 아시아와 유럽문화의 접점시대에 위치하여, 유럽문화의 중심으로서, 서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 시대에 미술 특히 교회문화는 화려한 색채와 더불어 다양한 문양의 장식성을 채택함으로써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배하였다<sup>13)</sup>.

또한 이 문화는 그리스 고전미술의 전통 위에 오리엔트 각지의 미술이 흡수되고, 그리스교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양식으로 창조되어 이러한 스타일의 혼합은 모든 장식예술<sup>14)</sup> 및 직물문양에 반영되었다.

그리스도교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비잔틴문화에서 나타난 직물문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세기경부터 비잔틴 직물은 제조와 교역에 있어서 국가의 통제를 받았으며, 기간산업으로서 길드조직에 의해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또한 페르시아 등 동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이 시기에는 색상과 문양 또한 구성에 이르기까지 동양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sup>15)</sup>.

국가의 통제에 의해 6-7세기에 직물업이 잠시 주춤했으나, 통제력이 약해진 9-12세기 동안에는 직물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 사용된 특징적인 직물문양은 주로 둥근 원 안에 인간의 모습과 사냥장면, 동물의 모습이 주를 이루었다. 서유럽 각지에서 발견되는 직물문양은 둥근 원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사자, 힘과 예수의 승천을 의미하는 독수리, 그리폰(독수리의 머리에 사자의 몸을 가진 동물), 코끼리, 공작 등 동물문양이 주문양이었고, 장미문양, 팔메트문양 등 식물문양은 주로 꽃받침이나 덩굴 무늬의 형태로 장식적인 역할로 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sup>16)</sup>.

### Ⅲ. 본론

#### 1. 한국에서의 식물문양의 상징성

식물문을 사실적인 문양과 공상적인 식물문양으로 구분하면, 사실적인 문양으로는 목단문, 연화문, 국화문, 석류문 등이 있고, 공상적인 식물문양으로는 불로초문, 당초문양, 보상문 등이 있다.

- ① 목단문: 목단은 유교와 무속의 영향으로, 부귀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富貴花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예부터 부귀영화와 함께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절세미인을 “國色天香”이라 하여 애호하였다<sup>17)</sup>. 우리나라에 목단문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당나라에서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고려에서도 성행하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꽃 중의 왕이라 칭하는 부귀한 꽃으로, 부귀의 상징으로 애호되어 봉황과 더불어 최고의 길상의 뜻으로 쓰여 경사에 많이 사용되었다<sup>18)</sup>. 색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랐는데, 붉은색 목단이 가장 높이 평가되었고, 흰색 목단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소녀를 상징하였다. 목단은 또한 사계 중 가을을 상징하며, 소나무, 바위와 함께 있을 경우에 “부와 명성과 장수를 나타내었다<sup>19)</sup>. 대표적인 예로 목단문은 활옷의 몸판과 소매 부분에 부귀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목단 무늬는 특히 혼례용품에 많이 사용되었다. 선비의 청운의 꿈이 담긴 책거리에도 목단을 그렸는데, 이는 부귀와 공명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② 연화문: 인도의 토속 신앙에 기초하여 빛과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연꽃은 불교 성

13) 김지영 (1992). 비잔틴 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전문집 15, pp.561-588.

14) 이상례 (1991). 전계서, pp.145-173.

15) Wickens, von L. (1991). Die textilen Kuenste - von der Spaetantike bis um 1500. Verlag C.H. Beck, pp.50-52.

16) Flemming, E. (1977). Textile Kuenste - Weberei/Stickerei/Spitze-. Verlag fuer Kunstwissenschaft Berlin W 50, pp.82-85.

17) 이순자 (1986).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복식 9, pp.89-106.

18) 이순자 (1986). 전계서, pp.89-106.

19) Eberhard, W. (1983). Lexikon chinesischer Symbole, - Geheime Sinnbilder in Kunst und Literatur, Leben und Denken der Chinesen. Eugen Diederiches Verlag, pp.216-217.

림 이후에는 부처의 상징으로서 사용되었다. 연꽃은 오랜 수행 끝에 번뇌의 바다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른 수행자의 모습에 비유되었으며<sup>20)</sup>, 연화문은 흙탕물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더러운 곳에서도 물들지 않는 청결함의 상징이었다. 또한 성스러운 진리를 상징하며, 꽃이 필과 동시에 열매가 생기는 연꽃의 특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因果)가 동시에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 성스럽고 아름답지만 요란한 향기를 내지 않는 점 역시 부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sup>21)</sup>. 우리나라에서 연화문은 삼국시대부터 불교문화와 더불어 시작 발전되어왔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배불숭유의 사상으로 큰 발전을 보지 못했지만 화중군자로 공양되었다. 중국에서의 연꽃은 “일치, 통일성”을 상징하고, 연꽃이 많은 씨를 가졌으므로 풍요함도 의미하였다. 붉은색 연꽃은 여성을 상징하며, 줄기는 남성을 상징하였다. 푸른색 연꽃은 청결, 깨끗함과 겸손을 상징하였다. 또한 영원함(불사)도 상징하였다<sup>22)</sup>. 당나라 때에 이르러 연화는 미와 행복의 상징이 되어 불교 도안 외에도 원앙 등과 조합되어 부부의 사랑, 내외간의 금슬과 화목을 뜻하게 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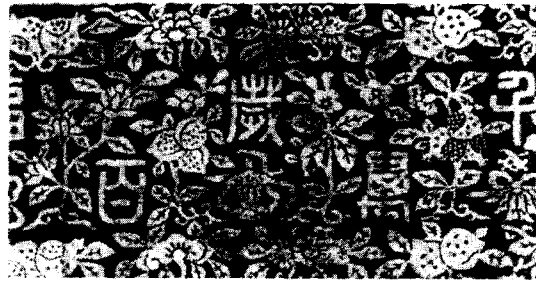


〈그림1〉 활옷의 부분(목단문, 연화문)한국의 복식문화, p.549

명, 청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반적으로 기타 화조와 함께 배치되어 각종 길상우의(吉祥寓意)를 나타나게 되었다. 다복(多福), 다자(多子), 청정, 청렴, 부부화합 등을 뜻하며 널리 사용되어왔다<sup>23)</sup>. 인도 고전에서 분홍색 연꽃은 태양을, 남색 연

꽃은 달과 Siva神(自在, 大自在天)을 나타내었으며, 연꽃은 암흑 속으로부터 나와 태양 빛 아래 꽃을 피우는 찬란한 정신문화를 상징하였다.

- ③ 석류문: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석류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석류는 붉은 주머니 속에 씨앗들이 빈틈없이 들어있고 가지가 많이 뻗기 때문에, 다손과 다남을 연상하는 부귀다남의 뜻을 지녔다<sup>24)</sup>. 중국에서는 석류문이 복숭아와 불수감문이 같이 있을 경우 이들은 3가지의 “행운의 과일”이라고 하였다. 결혼선물로서 사람들은 반쪽 열려있는 석류의 그림을 주었으며, 석류를 열었을 때, 100개의 씨는 100명의 아들을 상징하였다<sup>25)</sup>.
- ④ 복숭아문: 복숭아문은 천도문이라 불렀는데, 천도는 삼천년 만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여, 불멸과 장수를 축원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sup>26)</sup>. 즉, 장생(長生)과 벽사(僻事)를 상징하였다<sup>27)</sup>.
- ⑤ 불수감문: 겨울에 열매를 맺으며, 모양이 부처의 손가락을 닮았으며, 불(佛)과 복(福)의 음이 유사하여 다복(多福)으로 해석된다. 불교에서 손은 장수를 의미하며, 나비와 같이 있는 부처는 80세까지의 장수를 상징하였다<sup>28)</sup>.



〈그림2〉 삼다상징문 (석류문, 복숭아문, 불수감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p.55

20) <http://www.chosun.ac.kr>  
 21) 김양희 (2003). 전개서, pp.67-75.  
 22) Eberhard, W. (1983). op.cit., pp.183-184.  
 23) 김양희 (2003). 전개서, pp.67-75.  
 24)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형설출판사, p.54.  
 25) Eberhard, W. (1983). op.cit., p.119.  
 26) Eberhard, W. (1983). op.cit., pp.224-225.  
 27) <http://www.chosun.ac.kr>

에서 손은 장수를 의미하며, 나비와 같이 있는 부처는 80세까지의 장수를 상징하였다<sup>28)</sup>.

복숭아, 석류, 불수감문은 삼다상징문으로 다남(多男), 다복(多福), 다수(多數)를 이르는 것으로 인생 최대의 행복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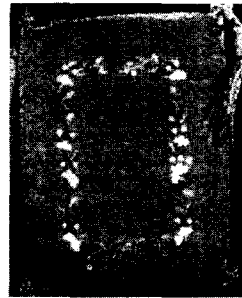
- ⑥ 포도문: 포도문의 상징적 의미는 장수(長壽)와 다남자(多男子), 다복(多福)이다. 18세기말 영조의 딸인 화순옹주가 입었던 원삼에 있는 포도동자문은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와 동자가 결합된 문양으로 多男을 기원을 직물에 표현한 것이다<sup>29)</sup>. 생기 있게 뻗어가는 덩굴은 연속되는 수태를 뜻하고, 덩굴손이 용(龍)의 수염을 닮았다고 해서 큰 인물의 잉태나 벽사의 의미가 부여되었다. 또, 포드를 즐겨 먹으면 명이 길어지고 잔병이 없어진다고 믿는다. 포도(葡萄, 포도나무)는 한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는 데서 풍요도 상징하며, 토양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땅에서나 잘 자라며, 겨울철에는 특별히 보온해 주지 않아도 얼어 죽지 않으므로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한다<sup>30)</sup>.

- ⑦ 매화문: 매화의 5개의 잎은 5개의 행운의 신을 상징하였으며, 매화는 오덕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쾌락, 행복, 장수, 순리, 절개 등을 의미하여 생활의장품에 두루 사용하였다. 또한



〈그림3〉 포도동자문 1580년  
한국전통복식문양사, p.56

매화는 많은 씨(아이들)를 열리게 하며, 대나무와 같이 있으면 많은 손자들을 가져온다고 믿었다<sup>31)</sup>. 또한 매화와 대나무가 같이 있으면 부처를 상징하고, 또한 대나무는 남편을 매화는 아내를 상징하였다. 매화는 군자의 지조와 절개에 비유하며, 장수도 상징하였다. 매화에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며 기생 집 침상도구에는 매화그림이 많으며, 이도매(二度梅)는 재혼을 말한다<sup>32)</sup>.



〈그림4〉매화문 19세기  
한국전통복식문양사, p.44

- ⑧ 난초문: 난초의 손(孫)과 자손을 말하는 손(孫)이 同聲同音이므로 난초를 자손번창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한복의 치맛자락에 난을 수목화로 그리면서 사용되었다<sup>33)</sup>.
- ⑨ 국화문: 국화는 고려시대 이래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국화는 가을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중국에서 발음이 “머무르다(ch)”와 긴 시간을 의미하는 발음과 같아서, 국화는 장수를 상징한다. 즉, 국화가 불노불사의 영초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국화는 느린 서리에도 견디다 하여 길상의 징조로서, 맑은 아취와 고고한 기품과 높은 절개를 가진 선비를 상징하였다<sup>34)</sup>. 주머니와 수저집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의복

28) Eberhard, W. (1983). op.cit., p.84.

29) 이혜란 (1986). 포도당초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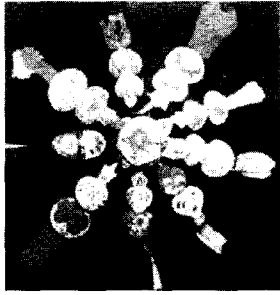
30) <http://www.chosun.ac.kr>

31) Eberhard, W. (1983). op.cit., pp.226-227.

32) <http://www.chosun.ac.kr>

33) 박옥련 (2000). 전개서,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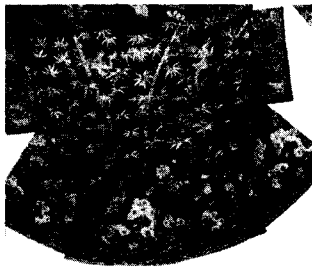
34) Eberhard, W. (1983). op.cit., pp.52-54.



〈그림5〉 국화문 (바늘꽃이)  
한국전통복식문양사,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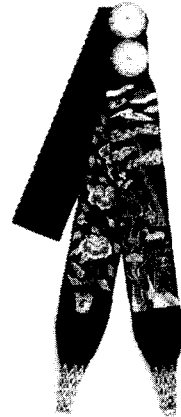
에는 주로 저고리 깃, 끝동, 고름, 땀띠와 스란치마에 많이 나타난다.

⑩ 대나무: 대나무는 죽(竹)과 축(祝)의 음이 같다고 하여 축수(祝壽)의 의미로 쓰였다<sup>35)</sup>. 대나무는 항상 푸르므로 장구한 생명의 힘을 느끼게 하고, 대나무의 속은 비어 있는데, 이는 겸손과 미덕을 상징하였다. 또한 대나무는 가늘므로, 고령의 노인에 비유되기도 하였으며, 과거 중국에는 대나무로 불꽃 폭약주머니를 만들었다. 대나무가 터질 때 큰 소리가 났는데, 이는 악령 추방을 의미하였으며, 새해나 다른 행사에서 벌어지는 불꽃놀이는 이러한 의미에서 행해졌다. 또한 대나무는 평온함과 평화를 상징하였다<sup>36)</sup>.



〈그림6〉 대나무문양 (Quig Satin robe)  
The book of Silk, p.30

⑪ 소나무: 음양오행사상에 따르면 오행 중 木性에 해당되며 동시에 東方을 가리키며, 陽의 象을 표현하였다. 영원히 푸른 것, 영원한 생명의 象이며, 소나무 잎의 색이 변하지 않고 장생하고, 신성시 되므로 절개, 장수, 번무의 뜻을 지녔다. 소나무 두 그루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면 부부화합을 상징하였다<sup>37)</sup>.



〈그림7〉 소나무문 (고이땀기)  
한국의 복식문화, p. 356

⑫ 호로박문: 호로박문은 그 속에 무한의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를 표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백자(百子)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자손 번창을 의미하는 길상적 상징물이다. 또한 모든 귀신이나 독충을 잡아 가둘 수 있다고 믿어 벽사와 마귀 제압의 상징물로 간주되었다. 이 문양은 삼작노리개 등 여성의 장신구 및 직물문양에 사용되었다<sup>38)</sup>.



〈그림8〉 호로박문  
한국복식사, p. 203

⑬ 보리수문양: 보리(Bodhi)라 하는 나무는 범어로 “깨달음” 즉 지성의 나무이며, 석가모니가 나무아래에서 처음으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삶의 슬픔과 고통, 속절없는 세속적 쾌락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

3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한국의 무늬」(개정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p.238.

36) Eberhard, W. (1983). op.cit., pp.31-32.

37) Eberhard, W. (1983). op.cit., pp.153-154.

38)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p.202.

던 석가모니는 이 나무아래에서 고행을 하여 불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명상의 나무, 즉 사유수(思惟樹)라고 불린다<sup>39)</sup>.

- ⑭ 불로초문: 장생을 기원하는 인간의 염원으로 장생불사한다는 공상적인 식물이었다. 사슴의 입이나, 학의 부리에 불로초를 물고 있을 때, 장수의 의미를 배가하였다. 불로초는 빠른 성장도 상징하여, 즉 빠른 관직승차를 상징하였으며, 불로초가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 “다산”도 상징하였다<sup>40)</sup>. 불로초문은 주로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복합장생문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9〉 불로초문, 한국전통복식문양사, p.42

- ⑮ 당초문: 당초문은 줄기나, 덩굴을 연속적으로 도안화된 공상적인 꽃무늬로서, 국화당초, 인동당초, 연당초, 모란당초 등 다양하다. 덩굴인 당초의 속성은 오래도록 끊이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살아간다(生生不息)”의 의미를 갖는다. 연꽃, 포도, 인물, 새등과 결합되어 공범위한 분야에 활용되었다<sup>41)</sup>. 인동당초문은 그 기원을 북방 유목민족 스키타이에서 발원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sup>42)</sup>. 우리나라에서 포도당초문은 다산 또는 장생 등의 길상적 의미로 사용된



〈그림10〉 당초문, 한국복식사, p.203

것은 고려시대부터 인데, 무한하게 뻗어가는 덩굴은 장생을,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는 다산(多産), 다손(多孫)을 상징하였다<sup>43)</sup>.

- ⑯ 보상화문: 보상화란 2개의 반 팔메트(Palmette) 잎을 합성하여 문양화한 것으로 종교적인 상징성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장식문양으로 사용된 무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 보상화 무늬장식이 성행되었다<sup>44)</sup>.
- ⑰ 영지문: 영지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불로장생하며, 죽음에서 회생할 수 있다고 하여, 장수를 상징하였다<sup>45)</sup>.

## 2. 비잔틴에서 식물문양의 상징성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대표적인 문화의 하나인 비잔틴문화는 AD 330년에 건국하여, 1453년 오스만투르크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1000년간 유럽 문화의 중심을 이루었다. 기독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비잔틴 문화의 문양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주제가 십자가, 복음적인 문양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동방의 신비적 위엄과 비잔틴 양식이 융합되어 독자적인 양식을 창출하였다.

비잔틴 직물의 특징은 전체가 무늬로 채워진 것이 많으며, 두 세 개의 문양이 혼합된 것이 일반적이다. 비잔틴 시대의 직물이 그리스도교문화권의 문양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식물문양들을 통해서 문양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석류문: 로마에서 석류문은 부활을 의미하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며, 또한 풍성함과 번영을 의미한다. 이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석류 알

3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전계서, p.254.

40) Eberhard, W. (1983). op.cit., pp.288-289.

41) <http://www.chosun.ac.kr>

42) 김원룡 (1986). 「Art & Archeology of the Ancient Korea」. 태광출판사, p.355.

4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전계서, p.228.

4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전계서, p.194.

45) 황순信 (1996). 「중국길상백도」. 중앙민족대학출판사, p.70.



의 모습 때문인데, 석류는 하나의 열매 속에서 수많은 씨앗이 갖는 통일성과 일체성 때문에 교회에 비유되기도 하였다<sup>46)</sup>.

② 포도문: 포도문을 복식이나 문양으로 최초로 다룬 사람들은 앗시리아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sup>47)</sup>, 로마시대에는 기독교의 상징으로서 전 유럽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포도의 의미는 포도주는 예수의 피로, 포도원은 천국으로, 포도나무는 생명수로 상징되었다. 예수가 흘린 피가 포도주를 상징하므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수, 생명수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유럽으로 전파되었다<sup>48)</sup>. 비잔틴시대의 포도는 많은 종다를 가진 나무로서, 풍요 신앙의 瑞果紋으로 애용되었다<sup>49)</sup>.



〈그림11〉 연화문, 비잔틴 직물문양, p. 153

③ 연화문: 연화문이 장식문양으로 발전한 것은 고대 이집트의 로터스(lotus) 장식법에서 시작되었으며, 로마에서 가장자리선 장식에 주로 나타났으며, 연꽃은 생명의 상징이었다<sup>50)</sup>. 비잔틴 시대에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 피어나도 꽃잎은 항상 깨끗하며 또 연꽃은 다른 꽃에 비해서 수명이 매우 길다는 특성 때문에, 상징적인 꽃으로 숭앙받게 되었다<sup>51)</sup>.

④ 백합문: 그리스도교에서 백합은 마리아를 상징하는데, 백합은 신과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



〈그림12〉 백합문 Historic Costume in Pictures, p.18

켜주는 완전한 사랑의 표시이기도 하다<sup>52)</sup>. 또한 백합은 박애와 순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sup>53)</sup>.

- ⑤ 월계수 문양: 운동경기에 있어서 승리자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씌어주던 승리의 관이며, 그리스도 교회에서 월계관 문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종교적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월계수는 항상 푸르며, 그 잎이 잘 시들지 않으므로 영원과 불멸을 상징하였다<sup>54)</sup>.
- ⑥ 종려가지 문양: 그리스도교에서는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교인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생활할 때 이를 머리에 쓰고, 순교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한 순교자의 승리를 의미하고, 기쁨, 순교, 번영 등을 상징하였다<sup>55)</sup>.
- ⑦ 올리브 문양: 또한 비잔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상징으로 자유, 신앙,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였다<sup>56)</sup>.

46) 김지영 (1995). 전계서, p.168

47) 渡邊素丹 (1971). 「동양문양사」. 富山房, p.617.

48) 유수경 (1986). 포도문양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6(1), pp.129-146.

49) 조규화 (1985). 「복식미학」. 수학사, pp.196-200.

50) 김지영 (1995). ROME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 AD 300-700의 금, 은, 세공품을 중심으로-.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18, pp.163-192.

51) 임영주 (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52) Bauer, W.I. Duemotz & S.Golowin (1996). op.cit., pp.226-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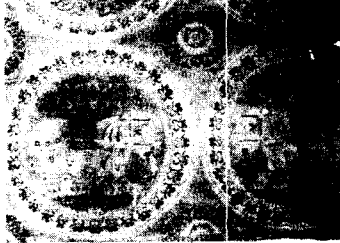
53) 한국의 무늬 (199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예맥출판사, p.177.

54) 김지영 (1995). 전계서, p.168.

55) Bauer, W.I. Duemotz, I. & S.Golowin (1996). Lexikon der Symbole. Fourier Verlag. p.206.

56) 김지영 (1992). 전계서, pp.567-568.

- ⑧ 장미문양: 십자가 중심에 있는 장미 문양은 완전한 일치성을 상징하였으며, 영원히 새로 펼쳐지는 세계도 의미한다<sup>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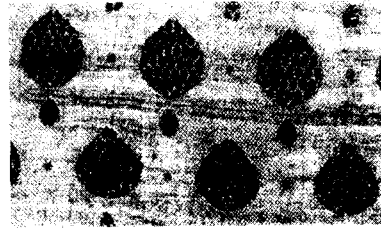
〈그림13〉 장미문, 10세기 Die textilen Kuenste, p.53

- ⑨ 나무문양들: 기독교에서 나무는 불멸, 지혜, 우주들의 상징으로서 십자가와 관계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다. 아카시아 나무나 줄기는 불멸의 상징으로, 상록수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무화과나무는 결실, 충실을 상징하였다<sup>58)</sup>.

- ⑩ 당초문: 당초문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전통적 양식인 안테미온(Anthemion)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 “아라베스크(Arabesque)”계로 나눌 수 있으며, 안테미온계는 로터스와 팔메트로, 그리고 아칸서스(acanthus)로 서분되어 볼 수 있다. 로터스는 원형 꽃무늬 형식이고, 팔메트는 선형 꽃무늬 형식이며, 또 아칸서스는 덩굴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sup>59)</sup>.



〈그림14〉 팔메트문양 561년 Costume & Fashion, p.45



〈그림15〉 Lotuspalmette문양 Die textilen Kuenste, p.106

비잔틴시대에 팔메트 문양은 군대의 개선행진 때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던 것인데, 초대 교회에서는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 교인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 죽음을 통한 순교자의 승리를 의미하고, 번영을 상징하기도 하였다<sup>60)</sup>. 이 시대 당초문의 표현 방식은 자연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모자이크의 영향을 받아, 빈틈 없는 공간처리로 평면적이고 무거움을 느끼게 하는 조형적 특성을 지녔다<sup>61)</sup>.

#### IV. 결론 및 요약

문양은 지역과 시대,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과 밀접한 복식과 직물 및 생활장식품 등에 표현되어 나타났다. 현실을 보다 중요시하거나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유교적 불교문화권인 동양과 절대 신의 구원을 통해 영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 문화권인 서양의 문화권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는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식물문의 상징성을 한국과 비잔틴을 중심으로 비교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직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식물문인 연화문, 석류문, 포도문, 당초문의 상징성에 대해서 두 문화권을 비교해보면, 연화문이 생명을 상징함은 같았다. 한국에서 연화문은 빛, 청결함,

57) Bauer, W.I. Duemotz & S.Golowin (1996). op.cit., p.204, p.224.

58) 이경순 (1996). 전계서, pp.203-235.

5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전계서, p.205.

60) 김지영 (1992). 전계서, p.561-588.

61) 김영옥 (1987). 페르시아 직물문양과 비잔틴 직물문양의 조형성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11(3), p.8.

풍요, 영원함을 상징하며, 비잔틴에서는 장수를 상징하였다. 석류문은 한국에서는 부귀다남을 상징하였고, 비잔틴에서는 부활을 의미하였으며, 풍성함, 번영, 통일성도 상징하였다. 포도문은 그 풍성한 포도알의 모습으로 인해 다산, 번창을 뜻하는 문양으로 애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불교유교 사상과 결합되어 포도문이 생명, 풍요, 다산, 다복, 장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였고, 그리스도교에서도 풍요함을 상징하며, 예수의 피로, 천국, 생명수로서 의미를 가진다. 두 문화권 모두가 하늘이 땅에 비를 내려 나무가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을 비라고 염원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sup>62)</sup>. 당초문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다산, 장생, 다산을 의미하며, 비잔틴에서는 승리, 순교자의 승리, 번영을 상징하였다.

둘째, 각각의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식물문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목단문은 부귀공명을, 복숭아문은 장수와 벽사를, 불수감문은 다복과 장수를, 매화문은 쾌락, 행복, 장수, 순리, 절개를 나타낸다. 난초문은 자손번창을, 국화문은 불노불사와 절개를, 대나무는 생명력, 겸손, 미덕, 평화를, 소나무는 장생, 절개, 번무를, 보리수는 명상, 지성, 깨달음을 호로박문은 자손번창 벽사. 마귀의 제압을 상징한다. 불로초문은 장생불사, 관직승차, 다산을 의미하고, 연지문은 불로장생을 상징한다.

반면 비잔틴에서 백합문은 순결, 박애, 사랑과 마리아를 상징하며, 올리브문양은 그리스도의 평화, 자유, 사랑,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종려가지 문양은 순교자의 승리, 기쁨, 번영을 나타낸다. 월계수문양은 승리자의 공과, 종교적 승리를 상징한다. 나무문양은 불멸, 지혜, 우주를 상징한다. 아카시아 나무나 줄기는 불멸의 상징으로, 상록수는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무화과나무는 결실, 충실을 상징하였다.

식물문 비교 시 두 문화권에서 보여지는 공통

적인 식물문의 종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사용되는 식물문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식물문의 종류가 연화문, 석류문, 포도문, 당초문 정도였다. 특히 비잔틴에서 식물문은 주문양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부 주문양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문에 비해, 또한 한국에 비해 그 중요도와 의미가 낮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식물문이 사실적 혹은 추상적인 형태로 큰 의미를 지니면서, 단독문 혹은 부문으로 직물에 직조되거나, 장수의 기법을 통하여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그 의미는 주로 길상의 의미로, 다남(多男), 다손, 장수(長壽), 부귀공명 등의 상징성을 지니며, 특히 의례복에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비잔틴에서는 승리, 번영, 생명, 순결, 지혜 등을 상징하는 식

(표1) 식물문의 상징성 비교

	유교적 불교문화권 (한국)	그리스도교 문화권 (비잔틴)
연화문	빛, 생명, 청결함, 풍요, 영원함	생명, 장수
석류문	부귀다남	부활을 의미하는 그리스도, 풍요, 번영, 통일성, 열성
포도문	장수, 다남, 다복, 풍요, 강인한 생명력	예수의 피, 천국, 생명수, 풍요신앙
목단문	부귀, 공명	
당초문	다산, 장생, 다손	승리, 순교자의 승리, 번영
복숭아문	장수, 벽사	
불수감문	다복, 장수	
매화문	쾌락, 행복, 장수, 순리, 절개, 지조	
난초문	자손번창	
국화문	불노불사, 절개	
대나무문	축수, 생명력, 겸손, 미덕, 평화	
소나무문	장생, 절개, 장수, 번무	
호로박문	자손번창, 벽사, 마귀의 제압	
보리수문	명상, 지성, 깨달음	
불로초문	장생불사, 관직승차, 다산	
연지문	불로장생	
백합문		순결, 박애, 사랑
올리브문		그리스도 평화의 상징, 자유, 신앙, 사랑, 아름다움
종려가지문		죽음, 순교자의 승리, 기쁨, 번영
월계수문		승리자의 성공, 종교적 승리
장미문		일치성(통일성)
나무문		양불멸, 지혜, 우주

62) 유수경 (1986). 전계서, pp.129-146.

물문들이 주로 부 문양으로 동물문이나 기하학적 인 문양을 형성하고 난 뒤 남은 공간을 채우는 문 양으로 사용되었다. 두 문화권에서 직물에 사용 된 식물문은 고유의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되었으 나, 비잔틴에 비해서 한국에서 주 문양으로서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 참고문헌

- 김양희 (2003). 중국 길상도안에 나타난 연화문 연구. 복식 53 (1).
- 김영옥 (1987). 페르시아 직물문양과 비잔틴 직 물문양의 조형성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11(3).
- 김원룡 (1986). 「Art & Archeology of the Ancient Korea」. 태광출판사.
- 김윤덕 (2000). 한국전통문양 디자인에 관한 연 구. 전주기전여자대학 논문집 20.
- 김지영 (1992). 비잔틴 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한양여전논문집 15.
- 김지영 (1995). ROME시대의 문양에 관한 연구 - AD 300-700의 금, 은, 세공품을 중심으로-.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18.
-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형설출 판사.
- 박혜원 (1995). 봉황문양의 한국적 조형미에 관 한 연구 - 일본과 중국의 조형미 특성과 비교에 의한-. 오산전문대학논문집 5.
- 신민 (2001). 한, 중 전통문양의 비교 연구 - 길 상문양을 중심으로-. 한국공예논총.
- 신영선 (1993). 색과 문양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 문화인류학의 문헌을 중심으로-, 조형논총 12.
- 안명숙, 김용서 (1998). 「한국복식사」. 예학사.
- 유수경 (1986). 포도문양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6(1).
- 이경손 (1996). 기독교 상징에 관한 연구 -문양 및 색채를 중심으로-. 배화논총 15.
- 이상례 (1991). 비잔틴 직물 문양 연구. 창원전문 대학논문집 9.
- 이순자 (1986). 목단문양에 대한 고찰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복식 9.
- 임영자 (1996).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 임영주 (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 조규화 (1985). 「복식미학」. 수학사.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6). 「한국의 무늬」(개정 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Bauer, W.I. Duemotz & S.Golowin (1996). Lexikon der Symbole. Fourier Verlag.
- Eberhard, W. (1983). 「Lexikon chinesischer Symbole, - Geheime Sinnbilder in Kunst und Literatur, Leben und Denken der Chinesen」. Eugen Diederiches Verlag.
- Flemming, E. (1977). 「Textile Kuenste - Weberei/Stickerei/Spitze-」. Verlag fuer Kunstwissenschaft Berlin W 50.
- Harvey, Van A. (1964). A Handbook of Theological Terms. Macmillan Co.
- Wickens, von L. (1991). Die textilen Kuenste - von der Spaetantike bis um 1500. Verlag C.H. Beck.
- <http://www.chosun.ac.kr>
- 黃全信 (1996). 「중국길상백도」. 중앙민족대학 출판사.
- 渡邊素丹 (1971). 「동양문양사」. 富山房.